엄숙한 동맹과 언약

엄숙한 동맹과 언약, 종교의 개혁과 수호, 왕의 명예와 행복, 그리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세 왕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찰스 2세 왕에 의하여, 그리고 위 세 왕국의 모든 계층에 의하여 여러 번 채택되고 서명됨.

1643년 총회의 법령과 1644년 의회의 법령과 더불어, 위 동맹과 언약을 비준하고 승인함.

예레미야 50:5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언약을 맺자.*

잠언 25:5 *왕 앞에서 악인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굳게 서리라.*

역대하 15:15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5 *비록 사람의 언약이라도 확정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에든버러 총회, 1643년 8월 17일. 제14차 회기.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대한 총회의 승인.

왕국들을 더 가까운 결합과 연합으로 이끌기 위하여, 명예로운 신분 대회의 위원회 및 잉글랜드 의회의 명예로운 양원의 위원들과 연합하도록 총회가 임명한 위원회로부터, 그들의 협의의 결과로서 뒤에 언급된 언약을 받은 총회는; 그토록 공적인 관심사이며 그토록 깊은 중요성을 지닌 사안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가장 진지한 숙고에 부친 후, 이 교회와 왕국의 국가 언약의 갱신에서 그토록 큰 정도로 발견하였던 그 기쁨의 감정의 시작과 더불어, 온 마음을 다하여,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하고 받아들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복으로, 참된 개신교 종교를 폐하의 영토 안에서 완전한 평화로 안정시키고 보존하며,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전파하고, 폐하의 왕위를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의 가장 큰 애정으로, 이를 명예로운 신분 대회에 추천하니, 그들에 의하여 검토되고 승인된 후, 그것이 온 부지런함으로 잉글랜드 왕국에 보내져, 그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승인된 후, 공적인 겸비와 모든 경건하고 합당한 엄숙함으로, 개혁 종교의 모든 참된 신봉자들과 두 왕국에 있는 폐하의 모든 선한 신민들에 의하여 맹세되고 서명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A. 존스툰.

찰스 1세. 의회 제3차, 제1차 회기. 제5호 법령. 대회 소집의 비준, 동맹과 언약의 비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국 사이의 조약 조항들, 그리고 신분 대회와 그 위원회의 나머지 법령들에 관한 법령.

에든버러에서, 1644년 7월 15일.

1641년 그해 폐하와 세 신분이 개최한 마지막 의회의 마지막 법령에 의거하여 현재 소집된 의회의 신분들은, 폐하의 추밀원 의원들과 조약 조항의 수호자들이, 폐하와 의회의 신분들이 그들에게 맡

긴 신뢰와 이해관계에 따라, 탄원과 항의와 위원 파견을 통하여, 폐하의 명예와 양 왕국의 유익에 가장 이바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왕국의 평화를 확보하고 폐하와 잉글랜드에 있는 그 신민들 사이의 불행한 분란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방편을 사용해 왔음을, 그러나 이토록 좋은 목적을 위한 그들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노력이 무효로 판명되었고, 그들의 중재와 조정의 제안이 폐하에 의하여 거절되었음을 고려하여; 그러므로 사안의 무게와 어려움과 그들에게 지워진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1643년 5월, 공동 부담을 위한 위원들과 더불어 모여, 공동의 협의로 이에 대한 어떤 결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 무장한 교황주의자들과 그 지지자들의 무리로 인하여 참된 개신교 종교와 폐하의 명예와 그 왕국들의 평화에 임박한 위험과, 지체를 용납할 수 없고 왕국의 대표 기관의 자문을 요하는 다른 여러 공적이고 중대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폐하께서 이전에 의회 개최에 대한 그들의 겸손한 소원을 거절하셨으므로) 다음 6월 22일에 신분 대회의 모임을 임명하고 소집하도록 하였다. 이 회기에는 귀족들과 각 주와 도시의 대표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 위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진지한 숙고와 총회의 자문, 그리고 잉글랜드 의회가 위임한 위원들의 연합된 동의를 거친 후, 이러한 위험들과 그와 비슷한 다른 위험들을 막고, 종교와 양 왕국을 파멸과 멸망으로부터 보존하며, 평화를 도모하는 주된 치유책 중 하나는 양 왕국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언약에 들어가는 것임을 결의하였으니; 그 언약은 작성되어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허락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과 관련하여 양 왕국 사이에 조약이 합의되었고, 이 왕국은 그 안에 표명된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잉글랜드 왕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다: 그리고 신분 대회는 여전히 더 이상의 유혈 없이 폐하와 그 신민들 사이에 복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종교의 유익과 폐하의 참된 명예와 안전과 그 백성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선한 방편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대법관 로우든 백작 존, 메이틀랜드 경, 워리스툰 경, 그리고 로버트 바클레이 씨에게 잉글랜드로 가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언약의 조약들에 담긴 이 목적들의 성취를 도모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앞서 기록된 절차들을 고려한 위 신분들은, 추밀원 경들과 평화의 수호자들이 폐하와 그 신민 사이의 분쟁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겸손한 노력을 바친 것과, 공동 부담을 위한 위원들을 소집한 것과, 공동의 협의로 신분 대회의 지난번 모임을 지정한 것에 있어, 신실한 조언자요 충성스러운 신민이요 선한 애국자로서 처신하였음을 발견하고 선언하니,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 직책의 의무와 자기에게 맡겨진 신뢰에 책임을 다하였음을 보였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들의 모든 절차를 비준하고 승인하며, 위 대회가 합법적으로 소집되었고, 어느 때에나 있었던 어떠한 대회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구성원으로 온전하고 자유롭게 구성되었음을 선언한다; 또한 언약을 명하기 위하여 그들이나 그 위원회가 행한 여러 법령을 비준하고 승인한다. 또한 위 의회의 신분들은(그러나 앞선 전제와 앞서 말한 일반적 비준을 해하지 않으면서) 종교의 개혁과 수호, 왕의 명예와 행복,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세 왕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앞서 말한 상호 동맹과 언약을; 그 동일한 동맹과 언약을 승인하는 교회와 국가의 법령들과 더불어; 또한 그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관하여 스코틀랜드 신분 대회의 위 위원들과 잉글랜드 의회 양원의 위원들 사이에 합의된 앞서 말한 조약 조항들과 더불어 비준하고 승인하고 확증한다. 그리고 위 신분들은 위에 명시된 이 법령들이, 동맹과 언약과 더불어, 그것을 승인하는 법령들과, 앞서 말한 조약 조항들과 더불어, 완전한 법과 완벽한 의회 법령의 힘과 효력을 가지게 하며, 각각의 취지에 따라 폐하의 모든 신민에 의하여 준수되도록 명한다. 그 동맹과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문

엄숙한 동맹과 언약,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세 왕국의 종교 개혁과 수호, 왕의 명예와 행복, 그리고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잉글랜드의 의회 위원들과 신학자 회의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국무 대회 위원들 및 총회와 더불어 합의하였고;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와 잉글랜드의 양원, 그리고 신학자 회의가 승인하고, 그들에 의해 채택되고 서명되었으니, 1643년의 일이라. 이후 같은 권위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모든 계층 사람들이 같은 해에 이를 채택하고 서명하였고, 1644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령으로 비준되었다(그리고 1648년에는 죄를 자백하고 의무를 다짐하는 가운데 모든 계층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갱신되었고, 1649년에는 의회에서도 그리하였으며; 1650년 6월 23일 스페이에서 찰스 2세 왕에 의하여, 그리고 1651년 1월 1일 스쿤에서 채택되고 서명되었다).

우리, 곧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세 왕국에 있는 귀족들과 남작들과 기사들과 향신들과 시민들과 자치도시민들과 복음의 사역자들과 각계각층의 평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한 왕 아래 살며 하나 된 개혁 종교를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전진과, 왕의 존엄과 그 후손의 명예와 행복과, 참된 공공의 자유와 왕국의 안전과 평화—여기에는 각 사람의 사사로운 형편도 포함되는바—를 우리 눈앞에 두고; 또한 참된 종교와 그 신봉자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반역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계략과 음모와 시도와 술책이 모든 곳에서, 특히 종교 개혁 이래 이 세 왕국에서 있어 왔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들이 최근과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그 분노와 세력과 방자함을 더하고 행사하였는지—이는 아일랜드 교회와 왕국의 참담한 상태와, 잉글랜드 교회와 왕국의 고통스러운 상태와, 스코틀랜드 교회와 왕국의 위태로운 상태가 지금 현재로 공공연히 증언하는 바이거니와—이제 마침내(탄원과 항의와 인내의 다른 방편들을 거친 후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종교를 완전한 파멸과 멸망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지난 시대 이 왕국들의 칭찬할 만한 관례를 따르고, 다른 나라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따라, 성숙한 숙고 끝에, 우리는 상호간의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결정하였으니, 이에 우리 모두가 서명하고, 우리 각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노라,

I - 참된 종교의 수호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의 처소와 소명 안에서 진실하고 참되고 항구적으로 힘쓸 것이니: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 있는 개혁 종교를 그 교리와 예배와 권징과 정치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의 원수들에 맞서 보존하며;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왕국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훌륭한 개혁 교회들의 본에 따라 그 교리와 예배와 권징과 정치에 있어서 종교를 개혁하며; 그리고 세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종교와 신앙고백과 교회 정치 형태와 예배 지침서와 교리문답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하나가 되고 통일되도록 힘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이후의 후손들이 형제로서 믿음과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게 하려 함이라.

II - 오류의 근절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교황주의와 감독제(즉 대주교, 주교, 그들의 대리자와 위원, 부감독, 참사회장과 참사회, 부제장 및 그 위계에 딸린 다른 모든 교회 직임에 의한 교회 통치)와 미신과 이단과 분열과 세속성과, 건전한 교리와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모든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힘쓸 것이니,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앙을 받을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게 하며, 세 왕국에서 주는 하나가 되시고 그의 이름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III - 시민 권세에 대한 충성에 관하여

같은 진실함과 참됨과 항구성으로, 우리의 여러 소명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다하여 의회의 권리와 특권과 왕국들의 자유를 서로 보존하기 위하여 힘쓸 것이며; 참된 종교와 왕국들의 자유를 보존하고 수호함에 있어서 왕의 존엄한 인격과 권위를 보존하고 수호할 것이니, 이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을 따라 우리의 충성을 증언하게 하고, 우리가 왕의 정당한 권세와 위엄을 감소시키려는 다른 어떠한 생각이나 의도도 갖고 있지 아니함을 증언하게 하려 함이라.

IV - 반역자들의 색출에 관하여

또한 우리는 온전한 신실함으로, 종교의 개혁을 방해하거나, 왕을 그 백성으로부터, 혹은 한 왕국을 다른 왕국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이 동맹과 언약을 거슬러 백성들 사이에 어떤 당파나 분당을 만드는 방화범들과 악의적인 자들과 악한 도구들이었거나 그러한 자들을 모두 색출하기 위하여 힘쓸 것이니, 이는 그들이 공적인 재판에 회부되어 그 범죄의 정도가 요구하거나 합당한 대로, 혹은 양 왕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나 그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관이 판단하는 대로 마땅한 형벌을 받게 하려 함이라.

V - 평화와 연합의 보존에 관하여

또한 지난 시대에는 우리 선조들에게 거부되었던 복된 평화의 행복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이 왕국들 사이에 허락되었고, 최근 양 의회에 의하여 체결되고 결의되었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각각 우리의 처지와 이해에 따라, 그것이 모든 후손을 위하여 굳건한 평화와 연합 안에 지속되도록 힘쓸 것이며; 그것을 자발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앞 조항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정의가 시행되게 할 것이다.

VI - 개혁에 대한 진실한 열망에 관하여

또한 우리는 우리의 처소와 소명에 따라, 종교와 자유와 왕국들의 평화라는 이 공동의 대의 안에서, 이 동맹과 언약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그것을 유지하고 추구함에 있어서 돕고 수호할 것이며; 어

떠한 결탁이나 설득이나 공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복된 연합과 하나 됨으로부터 갈라지거나 물러나서, 반대편으로 도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왕국의 유익과 왕의 명예에 그토록 관계된 이 대의에 있어서 가증한 무관심이나 중립에 빠지는 일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우리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모든 반대에 맞서 그 안에서 열심으로 항구하게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와 장애물에 맞서 그것을 촉진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억누르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때에 맞게 막히거나 제거될 수 있도록 드러내고 알릴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행하는 것같이 행할 것이다.

또한 이 왕국들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위험이 그 열매로서 너무나 분명히 보여 주듯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많은 죄와 도발에 대하여 죄책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이 왕국들의 죄로 인하여 겸비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거짓 없는 소원을 고백하고 선언하노니;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 순전함과 능력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려 힘쓰지 아니하였고 그분께 합당하게 우리 삶에서 행하려 힘쓰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노니, 이는 우리 가운데 그토록 많은 다른 죄와 범법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자신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우리의 권세와 책임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참된 개혁의 본을 서로 앞서 보이려는 우리의 참되고 진실한 목적과 소원과 노력을 고백하노니, 이는 주께서 그 진노와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시고 이 교회들과 왕국들을 진리와 평화 가운데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으며, 모든 마음의 비밀이 드러날 저 큰 날에 우리가 응답할 것같이 그것을 이행하려는 참된 의도로 이를 행하노니; 주께 지극히 겸손히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그 성령으로 강하게 하사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행사를 그러한 성공으로 축복하사 그것이 그 백성의 구원과 안전이 되게 하시며, 적그리스도적 폭정의 멍에 아래 신음하거나 그 위험에 처한 다른 그리스도인 교회들에게 격려가 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인 왕국들과 국가공동체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같거나 유사한 연합과 언약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동맹과 언약 서약 권고문 (1644년)

만일 종교의 능력이나 견실한 이성이, 만일 왕에 대한 충성과 조국에 대한 경애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후손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이, 만일 이 모든 것을 깊이 절감한 사람들의 본보기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비상한 성공이, 분쟁에 휘말려 피 흘리는 남은 자들을 깨워 그들이 회복될 지고의 유일한 방편을 붙잡게 할 수 있다면, 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은 그것이 제시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온갖 기쁨과 마땅한 도리로써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백성을 만나게 되리라는 데에 조금도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설령 이것이 존귀한 의회 양원과 신학자 회의와 이름 높은 런던 시와 이 나라의 탁월한 지위와 신분을 지닌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스코틀랜드 전체가 한결같이 격려하여 왕국에 천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 그들은 모두 기꺼이 이에 맹세하고 서명하였고 그 맹세를 기뻐하였으며, 그 맹세는 원수의 모략을 무너뜨리고 그 세력을 전에 없이 꺾으심으로써 이미 하늘로부터 그토록 은혜롭게 뒷받침되었다 — 이것은 그 자체의 힘으로 나아가며, 공평과 진리와 의의 너무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지니고 있어서, (고의로 무지하거나 비참하게 미혹된 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 안에 이 복된 결속으로 형제들과 연합하려는 불타는 마음을 일으킬 만하니, 이는 현재의 비참을 끝내고, 교황파 당파와, 그 독사 같고 피에 굶주린 족속에게 홀리고 우매해진 자들이 지금 그토록 맹렬하고 공공연하게 꾀하고 있는 완전한 파멸로부터 왕과 왕국을 모두 구하기 위함이다.

이 언약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극히 적은 것을 제외하면, 그 실질에 있어서 온 왕국이 오늘날까지 매여 있는 1641년 5월 5일의 저 엄숙한 항의서에 표현되었거나 분명히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죄악되게 소홀히 한 것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재앙을 왕국에 들여보내는 수문을 하나 더 열고, 왕국에 언약을 갱신하고 이 언약에 들어가야 할 필요를 지우고 있다.

만일 감독제, 곧 (아직은 왕국의 알려진 법률에 의하여 서 있는) 위계적 교회 정치 전체의 근절이 새롭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공정한 지성에게는 그것이 (비록 새롭기는 하나) 정당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곧 그들이 다음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다. (이 교회 정치가 이 왕국의 어떠한 법률로도 정식으로 수립된 적이 전혀 없다고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생명과 영혼 자체가 이번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의하여 이미 빼앗겼으므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세벨의 시체처럼) 관할권이라고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의 뜻에 달려 있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발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의 교회 정치 전체가 기껏해야 인간의 제정에 불과하며, 의회 양원(그 판단 안에 온 왕국의 판단이 담기고 선언되어 있다)에 의하여 시민 국가에 매우 해로울 뿐 아니라 종교의 완전한 개혁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판명되고 판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이 종교 개혁에 지나치게 적대적이며 경건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규례의 순수한 시행을 파괴하는 것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 때문에 거의 이 왕국 전역의 선한 뜻을 품은 자들이 오래전에 이 의회에 (이전에도, 곧 엘리자베스 여왕과 제임스 왕의 치세에도 요구되었던 바와 같이) 그것의 전면적 폐지를 청원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로써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인신에 어떠한 폭력을 가하도록 매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처소와 소명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근절을 위하여 힘쓰도록 매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교들에게 in licitis et honestis 순종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그들 말대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 교회 정치를 근절하기로 언약할 수 없다고 핑계하는 성직자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능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니, 나라의 법률에 순종하기로 맹세한 자들이라도 그 법률이 부적절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드러날 때에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그 법률의 폐지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그 맹세로 인하여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만일 어떤 목사들이나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이 보증하지 않는 어떤 맹세를 하였음이 드러난다면, 이 경우에 그들은 그러한 맹세가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스스로와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만일 이 언약이 수장 선서와 충성 선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면, 그보다 진리에서 먼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을 매며, 참된 종교와 왕국들의 자유를 보존하고 수호함에 있어서 왕의 존엄한 인격과 권위를 보존하고 수호하도록 그들을 더욱 강하게 의무 지우기 때문이다.

이 일이 왕의 동의 없이 행해진다는 그 거리낌도, 앞서 언급한 5월 5일의 항의서가 같은 방식으로 양원에서 의결되고 시행되었으며, 그 후 (한 원만의 명령으로) 온 왕국에 반포되었는데, 국왕 폐하께서 그때 친히 화이트홀에 머물러 계셨음에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서약을 조금도 막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곧 제거될 것이다.

스 10. 느 9.이와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군주들(당시 그들의 주권자들)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어떠한 특별한 위임도 없이 온 백성을 언약으로 이끌었으니, 그들은 자유로운 신민이 아니라 속민이었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아닥사스다의 시종이었는데, 느 1. 아닥사스다는 당시 정복에 의하여 유다의 왕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리나 관행은 잉글랜드의 왕좌에 앉았던 군주들에 의하여 선동적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복된 기억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하여 많은 재물과 고귀한 피를 들여 정당화되고 옹호되었으니, 곧 스페인의 펠리페의 동의 없이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연합한 네덜란드 연합주들에서 그리하였다. 제임스 왕은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연합을 승인하고 그들을 자유로운 국가들로 대하여 동맹을 맺기까지 하였으며, 이는 지금 통치하시는 폐하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폐하께서는 프랑스의 라로셸을 구원하기 위한 원정으로써, 또한 이에 반대하는 스페인의 온갖 간청에도 불구하고 오라녜 공 및 연방의회와 맺은 긴밀한 동맹으로써, 그의 왕실 선조들이 그와 같이 서약하고 연합한 자들을 지지하여 행한 모든 일이 정당하고 합당하였다는 것에 자신의 인을 치셨다.

만일 우리의 자매 나라 스코틀랜드가 그곳의 최근 분란이 시작될 때 이와 같은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의 종교와 법률과 자유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 방침은 처음에는 교황파와 감독파 모사꾼들에 의하여 폐하께 최고로 중대한 범죄, 곧 강력한 군대의 맹위로 징벌받아 마땅한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후에 그 문제가 냉정하게 논의되었을 때, 처음에는 양 왕국의 위원들에 의하여, 다음에는 이곳의 공개된 의회에서 (지금 옥스퍼드에 가담해 있는 양원의 모든 의원들이 그때 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에서 투표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스코틀랜드 형제들은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신민에게 합당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의회 안의 왕에 의하여 판명되고 판정되고 선언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의회의 법령에 의하여 이 왕국의 모든 교회에서, 그들이 비방당했던 바로 그곳에서, 공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를 로마의 우상숭배에, 우리의 법률과 자유와 인신을 전횡적 예속에, 우리의 재산을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오랫동안 공모해 온 저 예수회 모사꾼들의 간계에 눈이 가려지고 멀어져서, 왕의 이름과 권위(지금은 사로잡혀 그들의 모든 정욕을 섬기도록 욕되게 팔려 버렸다)의 날개를 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이 언약을 맺는 자들을 모두 반역자요 역적이라고 선포하는 위압적인 위협과 선언들에 겁을 먹고 어리둥절해질지도 모르나, 그럼에도 신실한 잉글랜드인의 마음은 결코 이 엄숙한 동맹 안에서 세 왕국 모두의 우리 형제들과 연합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다른 왕 아래 있었으나) 유다 사람들과, 대하 30. 히스기야의 초청에 응하여 연합한 것과 같다.

지옥 불에 타오른 저 혀들이 욕하고 위협한들 무엇이 두려우랴?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의 무죄함을 악한 하만이 그의 왕이자 그들의 왕에게 퍼부은 모든 악의적인 중상에 맞서 밝히 드러내기를 기뻐하시어, 하만의 모든 음모가 오직 이 결과만을 낳게 하신 하나님 — 에 9. 곧 왕의 명령과 조서를 시행할 때가 가까워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어하기를 바랐으나 도리어 반전되어, 유다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어하고 자기를 해하려 한 자들에게 손을 대었으되 아무도 그들을 당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그리고 바로 어제와 같이 충성되고 경건한 스코틀랜드 왕국을 뒤덮었던 어두운 구름과 안개를 흩으시고 걷어 내시고, 그들의 의를 그들의 가장 큰 원수들의 눈앞에서 대낮의 해같이 밝게 빛나게 하시기를 기꺼이 허락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순전한 마음으로, 또한 자기 죄와 개혁의 필요를 마땅히 깨닫고, 이제 잊히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주와 연합하여 왕과 이 땅의 신실한 자들 사이의 모든 불행하고 부자연스러운 분열을 끝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편에 의심 없이 서실 것이요, 그들의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셔서, 저 피 흘리는 자들, 곧 오랫동안 결탁하여 이제는 여러 왕국의 찌꺼기와 쓰레기를 긁어모아 이 나라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자유를 치욕과 멸망의 영원한 무덤에 묻어 버리려는, 하나님과 왕의 동맹한 원수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이 되게 하실 것이다.

Die Veneris 9. Februar. 1643.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서약에 관한, 그리고 그 서약에 즈음하여 일어날 수 있는 거리낌들을 해소하기 위한 권고문이 금일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낭독되었고, 그 문제에 대한 표결로 동의를 얻었으며, 즉시 인쇄하도록 명령되었다.

H. Elsynge Cler. Parl. D. Com.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